

139 번째 기도 편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 장 19 절)



Grace Community Church

B-36 Nandan Kanan, Santoshpur, Kolkata 700 075
Tel. (033) 2416 1475, E-mail: graceindia.net@gmail.com

"...তোমাদের স্বর্গস্থ পিতা, যারা তাঁর কাছে মাচনা করে,
তাদের উত্তম উত্তম দ্রব্য দান করবেন।"
মথি ৭:১১

2026

할렐루야

모두 평안하십니까?

전쟁과 자연재해로 하루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더욱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저희는 올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안식년을 갖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사역과 여러 상황
속에서 늘 기도로만 품어왔습니다. 2001 년
몇 개월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낸 후
돌아와 은혜공동체교회를 시작한 이래,
지난 25 년 동안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의 길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영과 육이 함께
재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치 해녀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기 전 숨비를 하며 숨을
고르듯, 저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욕심이라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이어지는 사역
속에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하는데, 그 이후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자리에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1 월 빌리엄과 아시스 학생을
졸업시키고 여러 방면으로 신학생을
모집했지만, 신학교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도 니파
바이러스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일 인도, 그것도 저희가 있는
웨스트벵갈이 근원지로 보도되어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그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은혜공동체의 부목사님이신 멀라이 목사님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한 걸음 물러나 지도자에서 동역자로, 동역자에서 조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가 다소 정체된 이 시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 파송교회인 왕성교회와 의논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아 오는 4월 15일부터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저희의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이 저희에게도 그러한 평가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이번 안식년이 선교사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회복과 채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특히 올해 구순이 되시는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온 자녀들과도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이번 안식년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함께해주신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들과도 다시 만나 감사와 위로를 나누고, 앞으로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인도에서 잘 보내고, 한국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것 보다 늘 더 풍성하고 좋은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기쁨의 도시 인도 캘커타에서
로수중, 진혜경, 샤론, 줄리아, 세라
은혜 공동체 식구들

후원 하시려면

외환은행 010-04-06388-042 GMS

신한은행 355-12-055-930 진혜경

Tel: +91-33-2416-7718 (H); +91-33-2416-1475 (Ch)

Mobile: +91-98306-44208; +91-98307-76629

E-mail: jinhyeikyong@gmail.com